



클로즈 · 업

全羅北道支部長 金載正씨

◎... 전라북도 지부장 金載正씨 -.

6척 巨驅에 과거 스포츠맨으로서 단련된 그의 몸매에서는 상대방을 위압하는 어떤 위엄까지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번 마주 앉아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자상한 그의 성격과 달변(達辯)에서 오는 조화감으로 인해 금방 친숙해져 버리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한창 젊었을 시절, 전북지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名정형외과의사로서 刀圭界를 주름잡던 외과전문의, 의학박사 金載正씨이다.

지금도 全州市 전동에 자리잡고 있는 金外科의원에는 그의 명성에 못지 않게 환자가 꼬리를 물고 찾아와 문전 성시를 이룬다.

◎... 『-최우수지부에 내려주는 시상금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직원들

의 사기 진작이나 앞으로의 사업 전망으로 보아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寄協이나·健協사업이 잘 될것입니다.』

65세의 老益壯을 과시하는 金지부장은 시상금제도를 제삼 강조하기도 한다.

72년 2월에 寄協 전북지부장에 취임, 지금까지 12년간을 오로지 寄協 발전에 온갖 정성을 다해온 金지부장이기에 그의 지부장으로서의 각오도 대단하다.

『-나는 지부장을 한날 명예직이라거나 책임이 없는 자리로는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지부장으로 재직중에는 말은바 소임을 성심껏 다해야지요.』

同席한 南相度사무국장은 이렇게 金지부장의 行跡을 귀뜸해 준다.

『金지부장님이 지부에 쏟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전북도내의 시·군·읍·면까지 직접 나아가 사업독려를 해주실 때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꼭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격해요, 또 한가지, 「金외과」는 우리 직원들의 부속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상처나 하다 못해 배아픈것까지 다 고쳐 주시니까요. 물론 무료봉사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 金지부장은 지부장 취임시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다.

『내가 취임전에는 당시 전북 부지사였던 김해두씨가 맡고 계셨지요. 무슨 일 때문에 지부장 사표를 내서 극구 만류했으나 끝내 고사를 해서 결국 사임하셨습니다.

당시 운영위원으로 나를 비롯해서 전북신문사장, 편집국장, 권치오씨, 신학봉 변호사, 김재정(산부인과 의사)씨 등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다른분을 선출한다고 해놓고 나를 뽑아 주어 취임했던 것이지요.

취임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정년으로 퇴임한 김종기 사무국장이 취임하셨습니다.

김국장 취임 당시만해도 전주 西중학교옆의 낡은 2층 건물에서 변경사를 하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그전에는 나협 건물 2층에서 사업을 벌인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건물도 김국장 당시에 지었는데 부산, 전남, 경기도에 이어서, 전북 지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당시 유기수 이사가 공사감독으로 내려 오셔서 예를 많이 쓰신 기억이납니다.

웃은 이야기로는 건축에 대해 문의한이었던 김종기 국장이 ABC부터 건축 공부를 시작, 나중에는 시방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에 담았었지요. 예를 들면 업자가 철근 8개를 넣는 공사계약인데 6개를 넣어 적발당해 툭툭히 망신을 당하고 다시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런 경유 등으로 해서 전북지부 청사는 비교적 성실하고 야무지게 지어 졌다



고 생각됩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김지부장의 얼굴에는 새로운 감회가 흐른다.

◎…지부장 재직 기간중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으신지요?

『기생충 감염율이 60년대에는 80%이상이었던 것이 67년 학생검변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부터 70년대 초엔 50%, 현재에 와서는(82년말) 12%로 격감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있지요.』

현재와 같이 감염율이 감소된 이 유로서 국민들의 文化생활향상도 있겠지만 말안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寄協 직원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전북지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대성공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민검변사업의 시발에 대해 김지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생검변사업의 감염율이 해마다 저하되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되는대신 직원들의 앞으로 갈곳이 어디냐?가 생각키우더군요. 그러가지고 돌파구를 찾은 것이 주민검변사업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년 2회 검변 투약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형제들로부터 재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젯점을 김국장과 나는 항상 논의했습니다. 어떻게하면 국민전체의 감염율을 저하시키느냐?로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이 학부모에 대한 검사 투약사업이 오히려 학생검변투약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되었습니다.

김국장과 나는 이런 결론을 얻고 추진한 것이 주민검변사업입니다.

다행하게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나와 김국장과 친한 사이였고 내가 과거 7년간 역임했던 전라북도 의사회장 재임시기였으며 김국장은 과거 언론인으로 또는 교육자로 당시 공화당 사무국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허물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득하고 안되면 5번 설득, 10번 설득끝에 그들이 주민사업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전북지부에서 최초로 주민자조방역사업으로 기생



충박벌사업이 시작된것입니다. 이것을 효시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지요.

지금도 전북도민이 230만명인데 비해 82년도에 44만8천명을 검사했습니다. 이런 뜻에서도 사기양양을 위해 직원들의 시상금 제도는 꼭 부활되어야 합니다.』

83년도 목표량도 40만명인데 南相度국장의 역량이 자못 크기때문에 전임 김국장에 못지 않게 사업실적을 거양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 지부장 재임이 12년 운영위원 재임까지 합하면 16~7년간을 재임하셨는데 그간에 있었던 에피소스-드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10여년 전만해도 병리기사 확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병원 독립병원 등에서도 구하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봄, 가을 한철에 12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애먹었지요. 심지어 사직당국의 조사도 받은적이 있어요.

기뻐던 일은 남의 집 2층에 셋방살이 검사를 하다가 지금의 이 청사가 마련되어서 입주할 때가 눈물겨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당시 김연주회장, 이우복총장, 유관기관인사 여러분이 참석 축하해 주셨는데 그 때 내가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전북지부가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것은 사무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서무과장 사업과장이 저변을 이룩하고 3각형을 이룬 인적 동화가 잘 되어 전북지부가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전국 1위라는 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확신과 기대를 갖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김지부장은 말씀하는 사이에 더욱 더 절의가 새로와 지는 듯 말소리에 힘이 더해진다.

◎… 앞으로 건강관리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南相度국장의 지난 1년간의 사업력량을 볼 때 과거보다 부족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력이나 성의나 노력 3부문에서 이제는 내가 관여치 않아도(다소 협조가 미흡하더라도) 전북지부는 타지부 못지 않게 잘 할 것이라는 굳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단 건협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사업체가 큰 집단체가 많이 모여있는 곳 하고는 사업상 말할 수 없는 고충과 또한 험난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상기한 곳들은 큰기관의 본부가 많아서 접촉을 통한 진취적인 활로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반해 전북은 도세빈약, 도민 G.N.P.도 타시도에 비해 비할 바가 못됩니다.

이런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무직원들을 보면 대견하고 어떤면에서는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것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뛰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1,350 만원을 시군비에 확보하여 검진사업에 임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4개월이 남아 있으니만큼 기관, 단체, 산업장 등을 설득, 계몽하여 소기의 금년도 사업을 부족없이 이룩하겠습니다.

— 김지부장님이 일평생 살아오신 座右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人生이란 첫째 人和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 대화의 광장을 갖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 주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특히 조직사회에선 人和團結이 첫째 여건이지요.』

힘주어 말하는 김지부장의 얼굴에서는 60평생을 人和로서 살아온듯한 굳은 철학이 엿보이기도 한다.

◎… 김지부장의 취미는 봉우동락(朋友同樂). 마음맞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 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주를 무척 좋아 하시는 분이시다.

부인 崔瓊鎬 여사와의 사이에 1男4女. 큰 아들 仁九씨는 서울醫大를 卒業하고 충남의대 조교수로 재직중인 의학박사. 큰 사위 壽君度씨는 현대전공주식회사 재직중이고 작은 사위 朴潤昌씨는 현직 판사. 3女 宣希양은 서울의대 부속병원의 인턴. 4女 熙景양은 이대대학원 불문과 재학중인 재원인 多福한家庭